“먹는 물 걱정 50년만에 처음”

■겨울 가뭄 극심 전남 농촌 가 보니

“밭농사 다 망쳤다” 한숨만

“50년 만에 처음으로 먹는 물 걱정을 해보네. 먹을 물도 걱정이지만, 농사는 어찌 지을지…”

전남 농촌지역이 극심한 겨울 가뭄에 시달리면서 식수난과 함께 농사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구례군 토지면 송월리 외한마을. 제한급수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마을에는 골목 곳곳마다 지름 2㎝ 크기의 고무호스가 널려져 있었다. 제한급수로 인해 부족해진 물을 끌어 쓰기 위해 마을의 식당 주인들이 설치해 놓은 일종의 ‘생명선’이었다.

고무호스를 따라 20여m를 가자 20t 짜리 물 저장 탱크가 보였다. 물은 절반 가량 차 있었다. 10가구의 마을 주민 25명이 사흘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다. 마을 주민 김모(51)씨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50년을 살았지만 식수난을 겪어보긴 올해가 처음”이라며 “주민 모두가 물 걱정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2㎞ 떨어진 야산의 계곡에서 물을 끌어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인해 계곡의 물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구례군과 소방서로부터 하루 평균 5천ℓ 가량의 급수를 지원받고 있다.

주민 이모(여·61)씨는 “식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수나 빗물로 밥을 짓는 일이 다반사”라며 “며칠 전에 내린 빗물을 100ℓ 짜리 고무물통 2개에 받아 놓았는데, 이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걱정했다.

배추와 무·파 등의 밭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도 속이 타들어가긴 마찬가지다. 작물의 잎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지만 물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 앞 개울가마저 물이 마르면서 거의 농사를 포기한 상태다.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박승호(57)씨는 “목욕은 고사하고 몇 달째 수세식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농사지을 물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올해 배추농사는 이미 포기했다. 심어놓은 배추도 다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가뭄극복을 위해 지하수를 파고 일부 지역에 대해 운반 및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식수난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현재 도내 운반 및 제한 급수지역은 구례·여수·무안·신안 등 4개 시·군 17개 마을 623세대에 달하고 있다.

한편, 올들어 지난달 30일 현재 광주·전남지역 강우량은 최저 947㎜, 최고 1천284㎜의 비가 내려 지난해 같은 기간 최저 1천300㎜, 최고 1천925㎜에 비해 평균 약 30% 정도 강수량이 부족한 상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지난달 30일 구례군 토지면 송월리 외한마을 한 주민이 겨울가뭄으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자 물을 미리 받아 놓을 물통을 마당에 쌓아놓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수뢰 물의’ 영광군 산림사업

또다른 부정들 있었다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직원 2명이 구속된 영광군의 산림사업이 집행과정에서도 각종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지난달 30일 ‘숲 가꾸기’ 사업 등 영광군이 산림조합에 발주한 사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벌였던 감사 자료를 확보해 오모(53)씨 등 구속된 군청 직원들과 사업을 맡았던 영광군 산림조합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영광군 산림조합이 2006년부터 수주한 관급 공사는 50여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업 가운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의 경우 어린 묘목을 심기에 알맞지 않은 겨울철에 집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말 준공된 임도 개설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을 부적절하게 연장해 줘 공사비가 추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칡덩굴 제거’ 사업 역시 엉터리로 이뤄진 것으로 현장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검찰은 오씨 등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도 감사에서 지적된 이들 사업의 준공 여비 명목으로 챙겼다는 점에 주목하고 경위를 캐고 있다.

아울러 사업의 부적절한 집행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이 오갔을 경우 오씨 등이 받은 돈이 상급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어 조만간 다른 직원들도 소환될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절도 미수범 여죄 밝힌 DNA 분석

5년전 성폭행·강도 드러나

경찰에 붙잡힌 절도 미수범이 경찰의 DNA 분석 작업으로 인해 5년 전 성폭행 범죄와 강도 등의 여죄까지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 새벽 3시께 광산구 모 아파트 2층 A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문모(49)씨를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문씨가 흉기를 소지한 데다 동종 전과가 있어 문씨의 타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 문씨의 DNA는 지난 2003년 9월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강간 용의자가 남긴 정액의 DNA와 일치했다.

뿐만 아니라 문씨의 DNA는 지난 2006년 4월에도 목포의 한 원룸에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 현금을 빼앗은 강도 용의자와도 일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많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DNA를 분석한 것이 문씨의 과거 범행을 밝혀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헉! 내년 빨간 날 다 어디 갔나”

쉴 수 있는 공휴일 올해보다 5일 적어

“달력이 온통 잿빛이네, 빨간 날은 도대체 어디로 간거야.”

2009년 기축년(己丑年)을 한 달 앞둔 지난달 30일. 직장인 박모(41)씨는 보험업체에서 발행한 내년 달력을 열어보면서 한숨을 내쉰다.

3·1절은 빨간 날, 현충일, 광복절은 파란 날, 추석과 개천절은 같은 날. 직장인들의 활력소이자 재충전의 기회인 공휴일이 사라진 것이다.

주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내년 공휴일은 110일(토요일 포함).

올해 115일에 비해 휴일수가 닷새나 적고 2007년과 비교해도 엿새나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쳐 실제 ‘빨간 날’은 6일(2008년 11일)밖에 안 된다.

이를 달별로 보면 1월 25일 ‘설 연휴 첫날’과 3월 1일 ‘3·1절’은 일요일. 5월 2일 ‘석가탄신일’과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은 토요일이다.

그나마 1월 26일 월요일이 ‘설날’이어서 설 연휴가 나흘간 이어진다는 것과, 5월 1일 금요일 ‘근로자의 날’을 쉬어주는 회사에서는 2일 석가탄신일과 5일 어린이날을 전후로 최대 닷새까지 쉴 수 있다는 것이 다소 위로가 된다.

또 12월 25일 성탄절은 금요일로 25~27일까지 달콤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커플(?)에겐 힘이 된다.

2009년 소띠해에는 소처럼 묵묵히 일해야하는 한해가 될 것 같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친구집 봐 주다가 외국인 화재 중태

친구 집을 봐주던 20대 외국인 원어민 강사가 화재로 중태에 빠졌다.

29일 오전 6시 10분께 목포시 옥암동 3층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2층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N(여·28)씨가 연기에 질식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포 모 중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고 있는 N씨는 이 원룸에 살고 있던 외국인 친구가 서울로 가면서 “집과 강아지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해 전날 원룸에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N씨는 유독가스를 많이 마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은 송년모임 등으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경찰은 이 기간 주요 도로와 유흥가 주변을 대상으로 주 3회 일제단속을 할 뿐 아니라 각 경찰서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상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유흥가 주변 도로에도 단속 경찰관을 배치, 음주운전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단속도 펼치기로 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올 10월 말까지 음주운전자 6천714명을 단속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9천924명에 비해 32%가 줄어든 수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바로잡습니다

지난 11월 29일자 3면 ‘100여회 4억원어치 전선 大盜’ 제하 기사에서 ‘한전 일용직 출신 전직 직원’ 부분은 ‘전기공사업체 전 직원’이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나우찬 〈7666〉 김종두

대홍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시공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후배 버릇 고치려다 또 경찰서행

쌍나팔

○…교도소에 함께 복역했던 후배가 욕설을 해대자 이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또다시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은 교도소 복역중 알게 된 후배 Y(40)씨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J(49·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27일 밤 9시께 자신의 집 근처로 찾아온 Y씨가 “함께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면서 욕설을 퍼붓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Y씨의 얼굴과 목 등을 2차례 찔렀다는 것.

○…J씨는 경찰조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것을 거절하자 욕설을 퍼부은데다 평소 나이도 어린 Y씨가 자신을 얕보고 욕을 자주 해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겁만 주려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 /이종행기자 golee@